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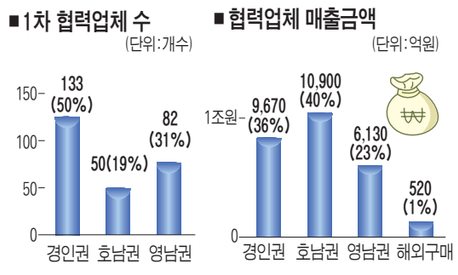
제1747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6월 12일 (음력 5월 17일) 월요일

토고와의 월드컵 1차전을 준비중인 한국대표팀선수들이 11일 오후 레버쿠젠 바이 아레나에서 열린 공개훈련에서 독일 현지 교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다. /레버쿠젠=연합뉴스

기아車 광주공장 협력사 광주·전남 업체 19%

현지업체 비중 더 높여야

수도권 50% 영남 31% 달해



지역경제 및 자동차 부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협력사의 현지업체 비율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기아차 광주공장에 부품을 공급중인 광주·전남지역 1차 협력사는 전체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65개 업체 중 광주·전남 50개, 경인권 133개(50%), 영남권 82개(31%)로 지역 고용창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부품을 금액으로 환산한 연간 매입금액은 전체 2조7천200억원 가운데 광주·전남 1조900억원으로 40%에 달했으며, 경인권 9천670억원(36%), 영남권 6천130억원(23%)에 그쳤다.

이에 대해 모 협력사 대표는 "광주공장이 그간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유지, 매출규모가 큰 협력사들의 유치가 어려웠고, 원거리 수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이 높고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외지 기업들의 이전 기피도 중요한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스포트지와 뉴카렌스 생산과 함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로 전환, 외지 협력사들이 줄지어 들어오면서 매입비율도 눈에띄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출규모가 큰 협력사의 경우 광주공장을 포함한 화성·소화리 등 모든 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므로 광주공장의 부품 수요가 많아지면 광주에 분공장을 건설, 현지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외지 협력업체의 지역이전은 2003년 7개, 2004년 4개, 2005년 3개로 늘어났으며 매입비율도 같은 기간동안 20%→30%→40%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4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협력사 유치를 위해 공장부지 확보, 진입로 확충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협력사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3~2005년 협력사 선진화 1~3단계 사업을 추진, ▲경영마인드 향상 ▲공장 혁신활동 개선 ▲부품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지도 ▲업종전문가 양성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어 기아차는 올해부터 협력사 자금, 품질 및 기술개발지원 확대와 동반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tlee@

"선장 잃은 토고 상대 원정 첫승"

태극전사, 결전지 프랑크푸르트로

World Cup AGAIN 2002

▶관련기사 4·5·7·8·15·20·22·23면

23인의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이 마침내 결전지 프랑크푸르트에 입성한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12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6시30분 독일 베이스캠프 숙소인 쾰른 인근 슐로스 벤스베르크 호텔을 떠나 버스 편으로 2006 독일월드컵 본선 G조 조별리그 첫 경기 토고전(13일 밤 10시)이 펼쳐질 프랑크푸르트의 베이스캠프 아라벨라 프랑크푸르트 호텔로 향한다.

쾰른과 프랑크푸르트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 이동 시간은 1시간30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코칭스태프는 전세기를 타고 경기장으로 향하는 조별리그 2, 3차전과 달리 1차전은 육상 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태극전사들은 간단한 여장을 풀고 프랑크푸르트 월드컵 경기장(코메르츠방크 슈타디온)에서 'D-1 훈련'에 들어간다.

오늘의 월드컵

<12일>

호주 vs 일본
카이저슬라우테른 22:00 KBS2·MBC·KBC

<13일>

미국 vs 체코
겔젠키르헨 01:00 KBS2·MBC·KBC

이탈리아 vs 가나
하노버 04:00 KBS2·MBC·KBC

아드보카트호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은 '선장'을 잃은 토고 선수들이 오히려 강한 응집력을 발휘해 예상 밖의 경기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독전에 독전'을 외치는 분위기다.

아드보카트호는 토고를 꺾고 1승을 올리면 승점 3점을 챙기는 동시에 한국축구의 월드컵 도전사에 중요한 한 장을 새롭게 쓰게 된다.

바로 원정 월드컵에서 반세기를 넘게 기다려온 첫 승이다. 한국축구는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썼지만 그 이전까지 5차례 월드컵 원정에서 쓰라린 좌절을 맛봐야 했다.

2002년 이전까지 5차례 원정 월드컵에서 한국축구의 전적은 4무10패. 아직 단 한 번의 승전가도 불러본 적이 없다. 이번 토고전에서 승리한다면 52년을 기다려온 원정 첫 승리를 한국 축구사에 담게 되는 것이다.

아드보카트호의 목표는 단순 명료하다. 상대는 G조의 최약체로 꼽히는 토고. 무조건 승리해야만 16강을 향한 길이 보이는 한 판이다.

더구나 상대는 결전을 불과 사흘 앞두고 갈등 속에 오토 피스터 감독의 전격 사퇴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코조비 마웨나 코치가 임시감독으로 지휘봉을 잡았지만 선수들의 동요를 막기는 힘겨워 보인다.

하지만 아드보카트 감독은 상대의 자중지란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고건 전 총리 본지 단독 인터뷰 ▶3면

"외규장각 도서 반드시 반환돼야"

외교부, 완전반환 입장 확고

외교통상부는 지난 10일 "외규장각 도서가 반드시 반환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측의 전시회 제의가 외규장각 도서의 궁극적 반환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가 이같이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은 우리측이 프랑스측의 제안을 수용, 오는 9월부터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외규장각 도서 전시회를 갖기로 함으로써 오히려 반환협상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그동안 가능한 모든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규장각 도서의 한국 전시는 프랑스측이 도서반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을 잘 인식하고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